

 <p><b>정치하는엄마들</b> www.politicalmamas.kr</p>	<b>취재요청서</b>		
	보도일시	2022. 05. 04. 수	
	담당	장하나 활동가	010-3693-3971
		박민아 활동가	010-2499-4094
	배포일시	2022. 05. 03. 화	총 매 (별첨 0건)

##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

- 일시 : 2022년 5월 4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지원센터 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 순서
  - 오은선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난다 활동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 김나단 어린이 (만 9세)
  - 김한나 어린이 (만 6세)
  - 남궁수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송지은 활동가 (청소년 성소수자 위지원센터 평동)
  - 이지예 어린이 (만 8세)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김희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 미류 활동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 24일차)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노키즈존 나빠요! 차별금지법 좋아요!’ 어린이 붓글씨로 대형 현수막 완성

1.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지원센터 평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등 인권단체들과 함께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오는 5월 4일 11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어린이차별철폐의 날 선포’ 기자회견 〈노키즈존 가고! 차별금지법 오라!〉에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따라서 노키즈존은 엄연한 아동 차별이고, 아동을 돌보는 양육자에 대한 차별입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키즈존은 아동 차별’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합리적 사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어서 한국 사회 곳곳에 노키즈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식(중), 잼민이 등 아동 혐오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3. 노키즈존 뿐 아니라 혐오와 차별에 근거한 ‘노○○존’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존이 늘어날수록 혐오의 대상도 늘어나고 혐오가 일상화 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키즈존을 포함한 모든 노○○존에 대한 철폐를 주장하며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혐오·차별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4. 사회구성원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게 연결될 때 우리는 기꺼이 살고 싶을 것이며, 비로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세상, 모두를 위한 평등의 디딤돌을 놓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린이날 대신 ‘어린이차별철폐의 날’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101주년 어린이날에는 ‘노키즈존 없는 사회,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선물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미류, 종걸 두 활동가의 무기한 단식농성이 24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2년 5월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핑동,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